



국립군산대 체육학부, 진천 선수촌 등 방문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스포츠 현장의 다양한 직무와 역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동행’ 프로그램에 선정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및 스포츠과학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체육학부 신입생과 재학생 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과 17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학생들은 선수촌 내 트레이닝 환경과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심리·체력·운동기술 분석 시스템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현장과 최첨단 스포츠 과학 시설에 대한 견학 및 실습 시간을 가졌다.

특히 펜싱 오상욱, 양궁 안산·김제덕, 육상 우상혁 선수 배드민턴 안세영, 사격 반효진 선수 등의 훈련 장면을 관람하고 선수들과의 소통 시간도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눈앞에서 본 것이 진로 선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다”며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군산대 체육학부 김민주 교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학습이말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며 “‘가르침과 배움의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확신과 실천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마중물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학부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견학은 체육학부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와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교대,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 2차 성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7일 ‘CS과확수사’의 대부, 윤의출의 **알쓸범잡**이라는 주제로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 2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윤의출 **前경부관**을 초청해 예비교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고, 교육가치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교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학생 심리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강에는 재학생 82명이 참여해 미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예비교원들의 의지를 보여줬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단순한 학문적 교육을 넘어 기본소양, 감수성, 공동체이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환경보호 ESG 실천 앞장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18일 ESG 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정읍시 용산호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10대 핵심과제인 ESG 실천을 위해 ‘ESG 실천!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정읍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 진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청 주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ESG 실천 모델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요촌동 복지기동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복지기동대(대장 이재호) 대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 의료인을 초청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시 보건소와 원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의 진행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했다. 한편 복지기동대는 대원 10명이 매월 복지기동대 회의회를 통해 12개의 사업을 진행하여 복지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본사내방

-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 ▲조경호 전북개발공사 대외협력국장

전국 최초 배터리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총력’

이리공고,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추진 산학관 컨소시엄 개최… 20개 기관·산업체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리공업고는 지난 16일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추진을 위한 산·학·관 컨소시엄을 개최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익산시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대, 기전대, 군산대, 배터리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예코융합섬유연구원, 성일하이텍, 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대졸자와의 차별성 △교육프로그램 개설 △재정 지원 △현장 수요 파악 △기업 내 취업처우 △특성화고와의 차별화 전략 등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리공업고의 마이스터고 신규지정을 위해 △이차전지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기숙사 신축 사업비 190억원 확보 △실습실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비 확보 △이차전지분야 교원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리공업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금 50억원 및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매년 6억원 지원 △5년 주기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의 운영 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한다.

한편 이리공업고는 추후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가칭)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18학급, 288명 규모로 운영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리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미래 유망 분야인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산학관이 적극 협력해 전국 최초의 배터리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소방, ‘경청이 곧 소통… 3분 스토리’ 프로그램 운영

직급·세대 간 소통의 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기성세대와 젊은 직원, 상하 직급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청이 곧 소통… 3분 스토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3분 스토리’는 각 부서장이 하루 3분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직원 생일 챙기기, 진급 축하, 결혼생활, 여행, 업무 개선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가 자유롭게 오간다.

이러한 대화는 직원 간 이해와 협력을 높이고,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긴박한 현장에서 오차 없이 움직여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팀워크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다.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평소의 유기적인 소통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이어진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조직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작은 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지역 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기탁 받아

윤마농장 박형순 대표·진안군 호두작목반·진안군 수의사회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진안군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총 58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기탁식에는 윤마농장 박형순 대표, 진안군 호두작목반 황관선 회장, 진안군 수의사회 국경훈 회장이 참석해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윤마농장 박형순 대표는 250만 원을 기탁하며 “진안의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5년 연속 장학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진안군 호두작목반은 181만 원을 기탁했다. 황관선 회장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다.”며 “호두작목반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호두작목반은 고품질 호두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진안군 수의사회도 장학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 국경훈 회장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젊어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고 있다.

전춘섭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양성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단체들의 따뜻한 참여가 더해져 더욱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검산동, 착한 가게 이어 착한 가정까지 탄생

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검산동에 확산되며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첫 착한 가게를 시작으로 두 번째 착한 가게(황금코다리)에 이어 착한 가정까지 탄생했다.

2025년 첫 번째 착한 가정으로 나눔을 시작한 오현 가족은 “나눔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황금코다리 장구 대표는 “주민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 착한 가게에 가입하게 되었다”며 “기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저희 가게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와 ‘착한가정’ 문의는 검산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063-540-4954)로 하면 된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익실지사 010-9642-2725	인후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팔복지사 253-6844	정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무주지사 010-2300-4253	부안지사 010-2425-4182	
호지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소방서, 민방위 참가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고창소방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민방위 기본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시연 △△화재 시 대피 요령 △완강기 사용법 설명 등 생활 속 응급상황에 필요한 안전 지식 전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민방위 대상자들은 강의를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혔으며, 화재 시 활용 가능한 완강기 탈출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조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전기차 화재대응능력 강화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7일,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소속 전문 교관을 초청,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소방대원의 전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론교육에서는 전기차의 구조,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화재 발생 시 위험 요소, 대응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고, 실습은 절차에 따른 접근 방법, 차단 장치 작동법, 화재 시 진압기법 등을 체험하며 실천 능력을 키웠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방대응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터리 화재의 특성상 일반 화재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방대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어르신 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지난 17일 장계 다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이날 다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33명을 대상으로 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등록을 마친 어르신들에게 손수건을 증정했다.

이와 함께 장수관내 7개 어린이집과 8개 병실유치원을 방문하여 40명의 아동들에게도 신청을 받아 사전등록을 실시하였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18세미만 아동, 지적·지체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이며,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경찰관서에서 등록을 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경찰서, 안심 정읍을 위한 비상벨 합동점검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범죄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178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비상벨 오작동 신고가 많은 샘고을 시장, 연치시장, 신대인시장 공중화장실 등을 범죄예방전담팀, 지자체 전통신장팀, 유지보수업체와 합동 점검하여 비상벨 위치, 작동 상태를 확인하였고 버튼식과 음성인식 비상벨이 동시에 설치 작동되는 곳으로 시스템 소리 점검 및 비상벨 위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 즉시 현장 개선하였다.

박상훈 서장은 “비상벨 확충과 점검으로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정읍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